

문화예술분야 국제교류 활성화 '맞손'

전북도국제교류센터-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업무협약... 콘텐츠 해외 홍보·국제개발협력사업 등 발굴

전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는 17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문화예술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라북도 공공외교의 거점기관인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와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이자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전라북도 국제위상 제고 ▲문화예술분야 국제교류 교두보 확보 ▲전북의 문화예술 콘텐츠 해외 홍보의 적극 전개를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양 기관은 전라북도 자매우호지역 및 우리 정부 신남방·신북방 정책 부합 교류 대상 지역 등 세계 각지에 전라북도 문화예술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며, 이 중 교류대상국 현지 문화 전문가,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보유한 우수 무대기술·연출 분야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양 기관의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전북도국제교류센터 이영호 센터장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도 전라북도 문화·예술의 국제화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이자



전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는 17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문화예술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수한 공연기획 기술을 보유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의 업무협약체결을 결정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내외 전라북도 문화예술 홍보 및 전

북의 국제 인지도 제고는 물론 전북의 특색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유호상 기자

'제91회 춘향제' 축소 개최 결정

5월 16~19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진행

남원춘향제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회의를 갖고 대한민국 전통축제인 제91회 춘향제를 코로나 장기화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 개최를 결정했다.

당초 올 춘향제는 4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광한루원 일원에서 인원통제가 가능한 규모로

방역을 철저히 해 매주 주말을 이용, 8주간 분산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불나들이와 개인모임 등 대인접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국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발적으로 발생, 남원시민과 남원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당초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춘향제 행사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축소,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



제90회 춘향제 춘향제향 모습.

이에 올 춘향제는 5월 16일과 19일까지, 대표 프로그램 춘향제향과 춘향선발대회 및 춘향국악대전 등으로 구성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9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제례의식인 춘향제향은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해 5월 19일 춘향사당에서 시립국악단 주관으로 진행, 춘향선발대회는 5월 19일 본선이 진행되며,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선심사 및 본선준비 중에도 엄격한 방역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전통문화와 민중예술을 드높이고 있는 춘향국악대전은 판소리, 무용, 민요, 기악·관악, 현악·병창 5개 분야 13개 종목으로 예선을 거쳐 5월 16일 '인속선명창의여정'에서 결선이 이루어진다.

춘향선발대회와 춘향국악대전은 지상과 방송으로 송출할 예정이며, 춘향제 유튜브채널 '남원와락'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영, 향후에도 언제 어디서든 시청이 가능하다.

춘향제추진위원회 운영부 부위원장은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온·오프라인 맞춤형으로 축제를 준비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아 불가피하게 진행방식을 변경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내실을 갖춰 춘향제 명맥을 유지하고, 춘향정신을 충실히 이어가는 축제로 시민들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상인 작품 전시회 '구시장길을 담다展'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르네상스사업단, 20일까지 진행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르네상스사업단은 오는 20일까지 중앙상가에 위치한 상인 커뮤니티공간 '매일그대와' 카페에서 상인 작품 전시회 '구시장길을 담다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상권 르네상스사업단에서 운영해 온 상인아카데미 '구시장길 미래학교'의 2021년 첫 프로젝트인 '코로나 위기 속 상인으로서 자아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참가 상인들이 직접 만든 자화상, 상인들의 활동 모습과 인터뷰가 담긴 영상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코로나 위기 속 상인으로서 자아찾기'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시장길 상인들에게 전문가 심리상담, 타로점을 활용한 마음 들여다보기, 목공예·자화상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상인'으로서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돼왔으며, 이번 전시회는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사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에 맞게 현장에 준비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군산에서 활동하는 플리마켓터들의 참가로 작은 마켓이 동시에 운영되는 등 풍성한 즐길거리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상권르네상스사업단(063-442-7949)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완주군, 김영하 작가 '여행의 이유' 올해의 책 선정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군이 2021 올해의 책으로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 (문학동네, 2019년 출간)를 선정했다.

17일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올해 책 읽는 지식도시완주 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여행의 이유'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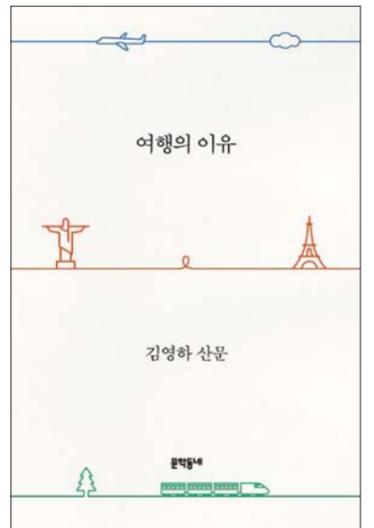
2021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도서관 이용자, 책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작은도서관, 독서회를 대상으로 총 24권의 추천도서를 접수했고, 2차로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추진위원을 대상으로 2차 서면 투표 결과 총 4개 도서로 압축됐다.

최종적으로 위원회 회의에서 '여행의 이유'가 선정됐다.

완주군은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여행의 이유' 저자초청 강연과 책에 소개된 문구를 활용한 굿즈제작, 포드존 운영, 필사릴레이, 낭독회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독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영하 작가는 '검은꽃', '살인자의 기억법' 등 다수 소설과 산문집을 집필한 인기작가로, '여행의 이유'는 김영하 작가가 처음 여행을 떠났던 순간부터 최근의 여행까지 오랜 시간 여행을 하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홉 개의 이야기로 풀어낸 여행 산문집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코로나 장기화로 여행을 못하는 대신 여행책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것 같다"며 "책을 통한 간접여행으로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가져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책 읽는 지식도시완주 추진위원회 위원을 재정비해 유관기관·교육계·도서관 및 독서관련단체 대표 등 총 16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지난 5일 첫 위원회를 열어, 여위숙(前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장) 위원을 위원장에, 정지은(상권면 기차길작은도서관 수탁운영 손애순 대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